

Youngeun News

# 동행

## 10월

2024년 458호



## 말을 건네는 이유?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관심입니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말을 건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1) 

〈글·사진 : 서현이 기자〉

##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58호 / 2024. 10. 6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김광일 장로

편집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장 김창원 집사

편집 서선이 김경원B

기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 CONTENTS

## 02 그림이 있는 풍경

말을 건네는 이유? / 서현이 기자

## 04 생명의 말씀

책망 이후 / 이승구 담임목사

## 07 믿고 알고 알고 믿고

무엇이 다른가요? / 한진구 목사

## 08 영은소식

故 황인학 은퇴권사 교회장(校會葬)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마치며 / 서상희 안수집사

## 10 동행

프랑스 위그노와 톨레랑스 / 김명희 권사

## 12 웹진 동행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나지영 집사

## 13 영은소식

〈살아가는 교회 청소년 캠프〉 개최 / 김하민 청년부

더누림, 말레이시아 쿠칭 단기선교팀 / 홍은희(더누림)

Revival: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 이경준 청년부

영은교회 중등부와 함께한 탄자니아 축구선수단 / 이승훈 장로

## 19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인도하심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 23 그리스도인의 향기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김경미D 집사

## 24 뼈뼉하게

바리새인은 '척' 이라도 했지 / 이숙경 기자

## 25 녹색교회 : 녹색계명

영은, 녹색 제8계명 : 녹색 문구점을 운영한다! /

장예은 (팀초록 팀장)

## 26 신앙의 유산

봉사가 삶이 된 '라이온스 장로님', 조민성 은퇴장로 /

김명희 기자

## 28 교회안내

새가족 환영의 날 / 이숙경 기자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책망 이후

(역대하 19:4~7)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 책망 이후 두 반응

책망 이후 최악의 반응을 보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입니다.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대하 16:7)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남 유다를 공격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아사 왕이 남 유다로 쳐들어와 라마 성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아사 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마 성은 남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으로 베냐민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곳에 성을 재건하여 아사 왕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에 아사 왕은 여호와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람의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침략했고, 바아사 왕은 군사를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 왕이 바아사 왕의 침략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왔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고 책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망 이후입니다. 책망 이후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도 없고, 실수로부터 어떠한 것도 배울 마음이 없으며, 실수에서 돌이킬 생각도 없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히려 아사 왕은 화가 나서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또한 자신에 대항하는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책망에 대한 최악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책망 이후 최선의 반응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자신보다 한참 아래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도 얼굴을 붉히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망을 듣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대하 19:2)

아사 왕을 책망했던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아



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맹한 것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간 행동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배역을 가법게 여겼고, 이세벨로부터 영향을 받아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로 인해 바알 숭배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 이후 3년간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에 대항하여 갈멜산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850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합은 이세벨과 합세하여 나봇의 목숨과 포도원을 빼앗았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그야말로 대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이자 ‘악의 길’의 표본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마 아합의 이런 행적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과 친분 관계를 이어나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여호사밧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버지 아사 왕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는 오히려 책망을 계기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 ■ 책망 이후, 초심으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대하 19:4)

책망 이후 여호사밧은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했습니다. 남유다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유다 전역을 다니며,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열심히 인도했습니다. ‘다시 나가서’는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 이전에 여호사밧은 신앙 부흥을 위해 율법 교육 담당자들을 뽑아서 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책망 이후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신앙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바로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려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제사장들을 지방으로 파견했던 그때의 열정을 회복하려고 자신이 직접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실수나 잘못으로 책망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망 이후입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사밧처럼 회복하게 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감동과 열정이 있었던 처음의 자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 책망 이후, 보완하며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대하 19:5)

책망 이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과 함께 중요한 일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온 성읍에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 체계를 세웁니다. 재판관과 지도자는 여호사밧 당시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에 재판관을 세워, 작은 성읍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사법체계를 정비합니다. 여호사밧은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들의 본분과 자세를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대하 19:6~7)

## I 생명의 말씀

여호사밧은 그들의 재판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재판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임무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지방 재판관들에게 권고한 대로, 예루살렘의 새 재판관들에게도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고합니다(대하 19:8).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대하 19:11)”라고 당부합니다.

여호사밧은 책망 이후 회복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주요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재판관들을 두어서 종교 사건들과 민사소송을 재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만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보다 잘못된 친분을 더 의지했던 부족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잃었던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해야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세워진 재판관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여호와께 속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서 경건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책망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 책망 이후, 에베소 교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4)”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공동체의 중심에 ‘복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 2:5)”

먼저 ‘생각’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기억을 통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열정이 넘쳤던 그 순간,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기뻐했던 그 순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던 그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심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나아가야 할 자리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 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생각하여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짚어보고 다시 보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책망 받으면 당장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상해 상대를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책망 이후가 중요합니다. 실수와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회복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다시 나아가야 할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행함을 통해, 크고 작은 책망 이후에 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 무엇이 다른가요?



글 | 한진구 목사

길 가다가 한 두 번쯤 마주치며 포교활동을 벌이는 이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나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성도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들은 불신자뿐 아니라, 기신자에게까지도 다가와 전도하려고 합니다.

## 1. 저들의 신앙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상홍 씨는 1947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 그는 추종자 23명과 함께 안식교를 탈퇴하며,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현재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모체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합니다. 1981년 안상홍 씨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고 신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칭송하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다가 1985년 2월 25일, 지병인 뇌출혈로 6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1985년 안상홍 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소속 교회가 10여 개로 교세가 미미했는데, 당시 20대로 총회장을 맡은 김주철 씨가 공격적인 선교회 나서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리하여 김주철 총회장을 필두로, 장길자 씨를 교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는 셋별 선교원, 총회신학원, 멜기세덱 출판사, 멜기세덱 성서교육원,

인터넷방송사 등을 운영하며, 월간지인 <십사만사천>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수십만 명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 2. 저들의 교리는 무엇인가요?

### 1)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이들은 죽은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혹은 재림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잠시 육체로 왔으며, 후에는 심판 주로 강림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심판 주로 공중에서 강림할 때, 신부 장길자 씨와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 2) 유월절과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절기 중 유월절 준수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안상홍 씨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여 다시 지키게 한 하나님이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상홍 씨는 약 15년간 안식교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강조하며,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합니다.

### 3) 십자가 없는 교회

십계명 중 2계명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문자적 이해에 근거하여 십자가를 우상시합니다.

4) 성탄절 우상론

하나님의 교회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2월 25일은 태양신 미트라와 탄생일이므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5) 시한부 종말론

안상홍 씨는 안식교와 마찬가지로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1988년, 1999년, 2012년 등 여러 번 종말의 때를 말했습니다.

3.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2천 여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믿는 것은 안상홍 씨와 장길자 씨입니다. 보통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되고, 예

수님의 영이 임하면, 현시대에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영육합일교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고, 그들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십자가를 예수님이지 현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신구약시대를 합쳐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부정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눈으로만 성경과 현대를 본다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포스트모더니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분별하며, 그 눈을 키우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찾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고(故) 황인학 은퇴권사 교회장(敎會葬)



지난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황인학 은퇴권사의 교회장이 있었다. 고(故) 황인학 은퇴권사는 1935년 10월에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으며, 1983년 영은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시

고, 2003년 4월 27일 영은교회 권사로 임직받으신 후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시다가, 2005년 12월 18일 은퇴하였다. 은퇴 후에도 씁쓸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24년 9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설악영은동산에 묻혔다.

고(故) 황인학 은퇴권사는 고(故) 임노병 명예집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임영철, 종희, 종녀, 희남, 경애의 1남 4녀가 있다. 





글 | 서상희 안수집사

##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마치며

9월 2일~9월 6일까지 4박 5일간의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영은교회에서 진행됐다. 전도폭발 훈련은 1967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교회를 개척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역이다. 성경적 전도원리를 사용하여 케네디 목사의 코롤리지 장로교회는 처음 17명의 교인이 9천 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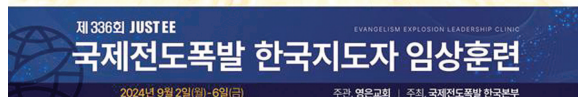
‘폭발’이란 폭탄에 의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도폭발훈련의 임상훈련은 교파를 떠나 성경적 원리를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도폭발훈련을 체계화하여 각 교회 및 지도자에게 전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전파 사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제336회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은 41명의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가 참여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분 중 평신도는 전도폭발훈련을 4~5단계까지 마치고 전도폭발 훈련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진행하게 되며, 목회자는 교육을 마친 후 전도폭발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은 국내 17여 개의 기지교회가 하나님의 전도사역을 앞장서서 섬기고 있으며, 영은교회도 16년 만에 주님이 주신 전도사명의 기지교회로 재부여받게 되었다. 전도폭발 훈련으로 2023년 11월에 <2024년 임상훈련> 일정이 결

정되었는데 우리 교회 본당 리모델링과 겹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교육 장소와 식당, 버스 등 모든 것이 이승구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와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시범팀의 연습과 임상훈련의 훈련자로 섬겨주신 30여 명의 임상훈련자의 암기와 100여 명의 중보기도부의 중보기도, 식당봉사와 주차, 간식, 버스지원 등, 영은교회의 모든 분의 관심과 섬김이 영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전도폭발임상훈련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손길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16년 만에 영은교회를 ‘전도폭발’의 기지교회로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린다. **동행**



임상훈련 수료자 및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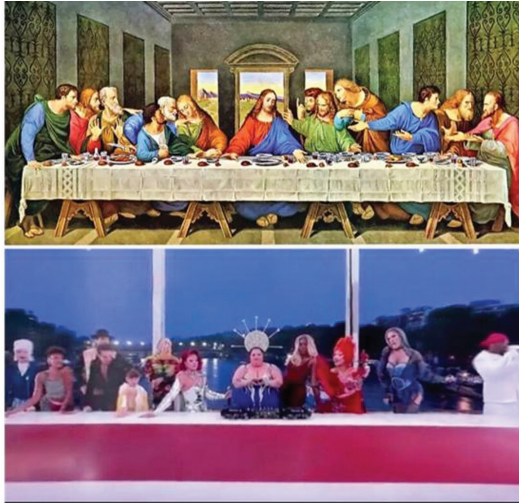


글 | 김명희 권사

## 프랑스 위그노와 톨레랑스

### ■ 파리올림픽과 톨레랑스

제33회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7월 26일에 개막해 8월 11일에 막을 내렸다.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총 10,500명이 참가했다. 개최국인 프랑스가 ‘성평등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남녀 선수가 각각 5,250명씩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파리올림픽은 남녀 선수가 50%씩 동등하게 참여한 최초의 올림픽이 되었다.



파리올림픽, 〈최후의 만찬〉 패러디

파리올림픽은 개막식부터 논란거리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개막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이 문제였다. 성인의 후광을 상징하는 듯한 왕관을 쓴 여성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여장 남성 모델(드랙 퀸, 트랜스젠더)들이 늘어섰다. 예수는 왕관 쓴 여성이, 제자들은 여장 남자들이 대역했다. 이 장면을 본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기독교를 조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 기독교 교단들도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흉내 낸 신성 모독”이며, “기독교를 비하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올림픽 공식 에스엔에스(SNS) 계정 등에는 기독교 신자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급기야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만약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유감”이며, “공동체의 ‘톨레랑스’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종교계든 무시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사과했다.

### ■ 위그노와 톨레랑스

프랑스어 ‘톨레랑스(tolerance)’는 번역하면 ‘관용’이다. 프랑스에서 ‘톨레랑스’는 1562년에 처음 사용됐다. 1526년 1월 15일, 왕의 모친이던 카트린은 박해받던 위그노들을 위해 〈톨레랑스 칙령〉을 선포했다. 프랑스 개신교도였던 위그노들에게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종교적 자유가 부여됐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개신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1562년 말에는 프랑스 땅에 2천여 개의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다. 당시 프랑스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200만 명 정도가 개신교도였다. ‘위그노’는 종교개혁자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16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개신교인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과 가톨릭

릭 세력으로부터 참혹한 박해를 받았다.

1598년 4월 30일, 앙리 4세가 선포한 <낭트 칙령>은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칙령이다. 비록 자유는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박해당하는 위그노 교회의 상징

이 칙령으로 프랑스 내에서 톨레랑스(관용)라는 가치가 최초로 규범화되었다. 그러나 루이 14세가 1685년에 <낭트칙령>을 폐지하는 <퐁텐블로 칙령>을 선포하면서 위그노들은 102년 동안 고통스러운 박해시대를 보내야 했다. 그들은 개신교 예배가 금지되면서 비밀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 1787년 11월 7일, 루이 16세가 톨레랑스 칙령으로 불리는 <베르사유 칙령>을 공포하면서 위그노의 박해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칙령으로 프랑스는 실제적인 톨레랑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톨레랑스는 프랑스에서 법이 되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파리올림픽의 논란이 된 개막식에서 ‘공동체의 톨레랑스’ 정신을 운운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루이 16세의 톨레랑스 칙령은 위그노에게 종교적 자유를 넘어 ‘시민의 권리’ 까지 부여했다. 위그노들은 ‘예배의 자유’가 아닌, ‘예배의 권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선택이 더 이상 죽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톨레랑스 칙령이 선포된 지 2년 후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은 톨레랑

스가 없던 왕권과 가톨릭교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이었다. 프랑스 대혁명과 19세기를 거치면서 톨레랑스는 고조되는 개인적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에 기반을 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공존의 원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프랑스 개신교회는 회복과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었고, 프랑스 사회는 종교적 관용을 누리게 되었다.

### ■ 톨레랑스 대 앵톨레랑스

성원용목사는 그의 책 『위그노처럼』에서, 오늘날 “톨레랑스가 우상이 되고 있으며,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절대 반지처럼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톨레랑스가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에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막아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톨레랑스는 종교나 신념의 측면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다. 성목사는 요즘 프랑스를 비롯한 현대사회는 톨레랑스(관용)가 ‘독재’하는 ‘앵톨레랑스(불관용)’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토로한다.

파리올림픽의 최후의 만찬 패러디에서도 ‘톨레랑스의 독재(앵톨레랑스)’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 박해시대의 위그노들은 기독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려 목숨을 걸었다. 위그노들은 희생과 순교를 통해 얻은 ‘톨레랑스’로 신앙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불변한 기독교의 본질이다.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보여준 최후의 만찬 패러디가 그 본질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 톨레랑스는 본질을 지킬 ‘권리’이기 때문이다. 





글 | 나지영 집사

## 꿈자람부 가정심방 : <꿈 만나Day!>를 통해 만난,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꿈자람부 교사실 입구를 보면, 작년 가정 심방 <꿈 퀴즈인더가정>으로 각 가정을 심방했을 때,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사진이 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올해도 가정심방을 하겠지? 꿈자람부를 너무 사랑하는 두 딸, 나울이와 나솔이가 우리집으로 선생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아하려나? 그런데... 우리 집은 교회에서 멀어서 심방 오시기 힘든 실텐데, 좀 죄송한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꿈자람부의 가정심방 시즌이 찾아왔다. <꿈만나Day!> 심방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시작하려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민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않게 해 주셨다. 바로 둘째 딸 나솔이가 전도하고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꿈만나Day!>에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당연히 가정 심방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린이 돌을 키우는 워킹맘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심방을 받을 리 없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든다. 그 부끄럼 많은 친구(정다현 어린이)가 선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다니! 교회도 안 다니는 어린이가 키즈 카페 가는 것도 아니고, 심방을 함께 받겠다니 말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예측불허다.

드디어 <꿈 만나Day!> 심방 날이다. 이에리아 목사님께서 <Sensing The Story> 교구를 통해 <선한 목자 이야기> 말씀을 전해 주신다. “나는 선한 목자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1)”

아이들은 말씀을 생각보다 잘 몰입하여 재미있게 듣고, 마음속에 쏙쏙 기억하고 있었다. 이어진 반추 활동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옆에 꼭 붙어살겠다고 고백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내 예상을 넘어서는 분!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바로 나였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여태껏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차올랐다. 예배 후, 꿈자람부에서 준비해 주신 자기가 애착하는 캐릭터를 담은 선물과 핑크색의 예쁜 헬륨 풍선을 바라보며 신이 난 해맑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혼자 눈물을 삼켰다.

가정 심방 <꿈 만나Day!>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나울이를,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나솔이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나솔이의 그 귀한 친구를,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을 만나게 해주셨다. 







글 | 김하민 (청년부)

## 〈살아가는 교회 청소년 캠프〉 개최

— 청년부 아우름팀 —

청년부 아우름팀은 8월 31일(토)부터 9월 1일(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영은교회에서 〈살아가는 교회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 〈살아가는 교회〉 청소년들과는 재작년부터 교제를 이어오던 중 황영찬 목사님께서 청소년 예배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 청소년 목회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영은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교회 학생들을 영은교회로 초대해 캠프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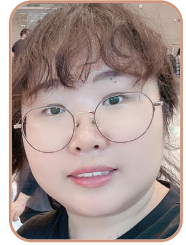
이 캠프에는 〈살아가는 교회〉 담임 황영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초등 및 중학생 총 13명이 참여했다. 살아가는 교회 학생들은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영은교회 청년들과 집회 및 예배, 그 외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어린이는 영은교회 소년부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중등부에서 예배드렸다. 토요일 저녁 집회 후 영은교회에서 하룻밤을 아이들과 같이 자며, 다음날 소년부와 중등부에서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로 사역을 마무리하였다.

캠프에 참석한 11명 아이 중 6명은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5명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초신자였다. 이번에 교회에 처음 와 보는 아이들이 80%를 차지해서 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집중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물어봤을 때 말씀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특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다.

이번 캠프에서 황영찬 목사님이 집회 전 영은교회 청년들에게 따로 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캠프를 통해 은혜받는 것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사역하는 우리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언젠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살아가는 교회〉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였다. 황영찬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이들보다 사역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 아우름팀 사역을 통해 미자립 교회와 영은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글 | 홍은희 (더누림)

## 더누림, 말레이시아 쿠칭 단기선교팀

— Great Commission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20)



쿠칭에 도착 후 공항에 마중 나온 구용회 선교사 가족  
(우, 백현이 선교사)

2024년 추석, 교육3부 젊은 세대 공동체 ‘더누림’ 러브 말레이시아(시즌2)팀은 구용회, 백현이 선교사님이 계신 말레이시아 쿠칭 땅에서 정성훈 목사님을 포함한 9명의 팀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5박 6일 동안의 단기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교육3부 ‘더누림’은 35세 이상, 미혼의 지체들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올바르게 서기, 삶 속에서 믿음 지키기 등에 대해 나누고 고민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소박하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동체를 꾸려 가는 중이다.

타 부서에 비해 공동체 인원도 적고, 활동도 없기에 “우리가 과연 단기선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성훈 목사님의 노력과 단기선교에 마음

을 품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 감사하게도 단기선교팀을 꾸릴 수 있었다. 우리가 단기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아마도 쿠칭으로 떠나기 전 더누림에 가끔 오셔서 함께 모임을 하며 나눔을 해주셨던 구용회 선교사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

### ■ 쿠칭한인교회 사역



쿠칭한인교회 : 천지창조 무언극

출발 3주 전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권 취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선교의 첫걸음을 뚫 수 있었다.

첫 사역지는 쿠칭한인교회에서의 사역이었다. 점심으로 한식을 우리가 만들어 성도들에게 대접하고,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함께 일일 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모두 맛있게 식사했다. 쿠칭한인교회의 아이들은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거부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어서 은혜롭게 첫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

## ■ 두바교회 사역



시골마을 두바교회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두 번째 사역지는 시골 마을에 있는 두바교회에서의 사역이었다. 산길을 2시간 정도 쉼 없이 달려 도착하니 마을주민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두바교회에서는 준비했던 수화위십과 무언극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현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였고, 몸이 아프신 마을주민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였다.

처음 보는 우리에게 아픈 곳을 보여주시며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기도의 힘을 굳게 믿고 있는 그분들에 비해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들에 비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반성을 하기도 하였다.

시내와 거리가 멀고, 마을주민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인지 한 번의 예배가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간절한지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들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환경과 다양한 예배들을 접하며, 예배를 골라서 드리기도 하고, 습관처럼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TSM 현지교회에서 진행된 가족캠프에 초대되어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수요일예배를 함께 드리며 현지 청년들과 쿠칭 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용회 선교사님의 사역의 시작에 참여할 수 있게 선한 길로 이끄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용회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백현이 선교사님, 구별, 구원)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백현이 선교사, 구원, 구별, 구용회 선교사





글 | 이경준 (청년부)

## Revival(회복) :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 ‘하나님의 선교’를 알게 된 필리핀 비전트립 —

‘주의 일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내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선교 가기 전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다.

김민식 목사님, 박희자 권사님, 조오순 권사님과 16명의 청년이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민도로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내게 선교는 다시금 주님을 처음 알았던 그때의 뜨거움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였다. 그래서 “Revival(회복) :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라는 슬로건을 목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었다.



피셔스교회 제1회 전도집회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 민도로섬에 도착하며 선교가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피셔스 크리스천 교회 (Fishers Christian Church)’의 제1회 전도 집회의

자리에서 수많은 현지인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이것이 주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했다.

다음으로 ‘빅토리아 그레이스 교회(Victoria Grace Church)’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나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 주었다. 순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는 그들을 보며 ‘이것이 주의 일일까? 뭔가 아쉬운데...’라고 생각했다.

이뿐 아니라, 계획했던 산족 성도들의 현지교회는 비가 와서 가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와 반겨주시고 음식도 대접해 주

셨을 때도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는 점점 다급함이 찾아왔다. ‘하나님, 저 정말 주의 일을 봐야 해요. 뭔가 더 대단한 일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 순서를 앞둔 저녁 시간, 김민식 목사님께서 “선교를 통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비로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특별함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다.



로스바노스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 ‘로스바노스교회’ 주변 필리핀대학교에서 저녁 집회를 홍보하며 노방전도를 하였다. 감사하게도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학입시, 시험, 건강 등의 고민을 나눠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주었다. 또다시 ‘초대했던 사람 중에서 누가 올까? 집회의 자리에서 만나면 정말 큰 은혜일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예정된 시간이 되어 현지 목사님의 기도로 집회가 시작되었지만 초대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중간중간 출입문을 바라보며 또 실망감이 앞서려 할 때, 어젯밤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때를 위해 언제나 일하시는 당신을 신뢰하며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뭉치 모를 편안한 마음으로 집회를 마칠 수 있었고, 현지 교인들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눈물 흘리셨다는 말씀이 평소보다 더 큰 감사로 다가

왔다.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함께 아침을 먹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집에 도착해 정리를 마치고 기도를 드리던 중 하나의 기도 제목이 강하게 들려왔다. “필리핀 사람들이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그렇다. 항상 주의 일하는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게 보이지 않으면 칭얼거렸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사고를 넘어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를 위해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나의 시선을 넘어 필리핀 사람들은 분명 주의 일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 고백을 마치자 그때서야 주님께서 내게도 일하고 계셨음을 느끼게 되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를 알게 되었다. 이제야 난 주님의 열매는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선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깨달았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앞으로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일하고 계실 주님을 믿으며 더욱 깊어진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필리핀 산족분들과 함께



## 영은교회 중등부와 함께한 탄자니아 축구선수단

글 | 이승훈 장로(해외선교부)

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기아대책 주관 호프컵 (HOPE CUP) 축구대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2018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6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다. 이번 축구경기에는 총 10개국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축구 팀은 만 12세부터 16세까지 남자 8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되며, 선수는 팀당 8명씩으로 여자선수가 2명 참가해야 한다.

2024년도 참가국은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남미에서는 과테말라와 에콰도르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훈련된 축구선수는 아니고 기아대책에서 결연을 맺고 지원해 주는 학생 중에서 선발되며, 그들에게 탄자니아 전통공연을 보여주고 축구시합에 참여하게 한다.

2018년도에는 가나 축구선수들이 영은교회를 방문하여 장년 오후 예배시간에 공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9월 29일은 다섯 번째 주일로 오후 예배가 없어서 중등부와 함께 예배하고, 예배 중에 탄자니아 전통춤 공연 시간을 가졌다. 탄자니아 학생들은 전통공연을 마치고, 한국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오”와 “축복해요” 두 곡을 찬양하였다.

영국 연방인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도시국가의 운구자라는 섬에서 비행기를 타고 30분 정도 날아가면 제주도 2/3 정도 크기에 무슬림만 60만 명이 사는 펜바섬이 있는데 탄자니아 축구단이 그곳에서 왔다. 부모들은 무슬림인 자녀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선교사를 신뢰하고 있던 펌바시의 시장, 경찰서 서장, 지역인사들의 설득으로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준희 목사가 교회에서 준비한 신발을 학생들에게 건네주었다. 신발이 작을까 우려했지만, 학생들은 신발이 너무나 좋아 뽀뽀를 몇 번씩이나 하였다. 그곳에는 주로 중국산 신발이 들어오는데 열흘 신으면 바닥창이 떨어져서 못쓰게 된다고 한다. 신발이 찢어져 실로 꿰매어 신는 아이도 많다. 이번 한국 방문 때에도 일부 학생들은 신발을 꿰매어 신고 왔다고 한다.

아주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탄자니아 학생들은 영은교회 중등부와 함께 예배하고 공연하고 신발을 선물로 받으며 너무도 즐거워하였다. 이들 중에서 탄자니아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곳에도 주님의 나라가 커가기를 기원한다. (동행)



영은교회 중등부를 방문한 탄자니아 축구단

# 인도하<sup>心</sup>

-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글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6:1)

‘We want a justice~!’ 최근 콜카타에 뜨겁게 울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지난 8월 콜카타에 있는 알지카르 대학 병원에서 충격적인 인턴 여의사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청년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거리로 모여 12년(인도 수도 델리에서 있었던 버스 성폭행 사건)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인도의 상황을 규탄하며 지도자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함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갈 길을 잃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죄짓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가 악해지고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신호겠지요. 이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 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눈물의 호소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잇고 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열정을 다해야 할 때인 듯 합니다. 우리들이 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고 길 잃은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길 기대합니다.

## 1. 사역 : 디모데 펠로십

### 1) 어린이 사역

지난 5월 수박전도 파티를 통해 더욱 주일학교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진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가득하길 기도해 주세요.





## 2) 가정 사역

매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 3) 라니아 교회

라니아 지역 교회는 주일 오전 9시 어린이 예배와 11시 성인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지난 7월에 사촌 조카 이의진 (서울, 말씀의 교회) 형제가 콜카타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 4) 교회 건축 현장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사역자들과 기초 공사를 마치고, 제가 없는 시간에도 사역자들이 열심히 건축에 힘을 써주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9월 중으로 건축업자와의 계약이 마쳐지면 내부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주도하여 진행



합니다. 모든 건축의 여정에 두 손 모아주시는 영은교회 기도의 동역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보내 주신 귀한 현금이 건축을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주 앞에서 신실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이외의 사역들



디모데 펠로십 제자훈련 1차 모둠 :

## 2. 사역 : 예스 스쿨 협력 사역

콜카타를 벗어나 두 시간 남짓 구불거리는 인도길을 달려 도착하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을 가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방학을 맞은 가은이와 함께 2주간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전기가 끊어져 선풍기가 멈추면 더위가 턱까지 차오르지만 묵묵히 이겨내는 가은이를 보니 세월의 흐름 속에, 가은이의 삶에 깊이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교육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과의 수업은 오히려 뒤치라악 전쟁 같습니다. 하지만 예스스쿨에서 영어와 미술 수업을 통해 인도 아이들에게 거룩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인도 작은 마을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날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3. 사역 : 자다폴 대학교

- 대학 사역 제자들 (자다폴 대학교 & 센터)

지난 3월에 시작한 한국어 기초 과정이 반환점을 돌아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9월 5일은 스승의 날이었는데 학생들이 사다준 초콜릿과 자신이 직접 쓴 책이 저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저 교실에서의 만남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 4. 가정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6월 한국 방문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깊은 감사와 회복이 있어 7월부터 저희들은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둘다 건강이 많이 회복 되었고 교회 건축으로 인해 받은 많은 스트레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안정 되었습니다. 콜카타에 비가 많이 와서 교회 방문에 부득이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준비되지 못했음에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죄송스럽고 더욱 열심히 달려야함을 다짐합니다. 가은이는 지난 6월까지 기숙학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콜카타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부모를 떠나 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강히 이곳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은이는 중학생이 되어 공부로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와서 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딸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글 | 김경미D 집사 (4교구)

##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 말 영은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집사직분도 받았습니다. 영은교회에 오기 전에는 개척교회를 다녔고, 목동제자 교회에도 잠시 다녔습니다. 집이 문래동이라 근처 교회를 다니기 위해 여러 곳을 찾던 중 영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은교회 교회학교에 다녀온 후 계속 다니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의 한 전도사님과 인연으로 혼자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고 자란 군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취업을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그 후, 같은 교회에 함께 다니는 청년과 결혼을 하였고, 가족은 그 때 그 청년이었던 남편(김지웅A 성도)과 세자매(은울, 하울, 서울)를 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군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올 봄부터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저는 항상 분주히 살고 있습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여 힘들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간단명료하게 생각하고 정리 한 후, 행동할 수 있게 되어 나름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바쁜 가운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작년에 전도 폭발 훈련1단계를 그리고 올 해 2단계를 수료 하였습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지만 신앙인으로서 덕목을

가졌기보다는 함께하는 교우들과의 관계에 즐거움이 더 컸기에 이제는 믿음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런 사람에 대해 의지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의지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심을 알게 되었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싶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도 가지고 싶기에 앞으로 더욱 더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주님을 향한 뜻을 바로 세워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에게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지식적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나,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제힘으로는 부족할 것을 잘 알기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며 저의 인생을 만져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바리새인은 ‘척’ 이라도 했지

글 | 이숙경 기자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시다시피 그날 아침 자기가 잡은 복어를 끓여 먹으러 간 함석호를 따라갔습니다. (중략) 말린 복어알을 함석호의 복국에 넣었죠. 정말 개처럼 잘도 먹더라고요. 소량의 독으로 겁만 주려고 했는데 진짜로 죽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중략)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모두 아버지께서 동행하신 덕분이에요. 다음 주 새벽기도회 참석은 물론 주일날 특별 헌금도 드릴 생각입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진, 바리새인의 고백 中〉

‘바리새인’의 사전적 의미 중 세 번째는 ‘위선자’이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로, 율법과 계율을 철저히 지키기는 하지만 본질을 떠나 허례허식에 매달리는 이들을 대표한다. 때문에 이들은 겉치레보다 본질을 우선하는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선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한다, 식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 제자들이 금식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다 등등,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 물론 예수님도 끝내주는 파이터이시므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11:39)” 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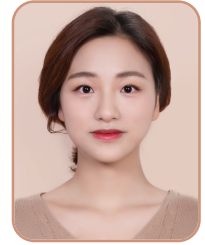
기독교인에게 바리새인은 반면교사다. ‘저렇게 살면 안돼’의 대표적인 표징이다. 그렇다면 ‘저렇게’는 무엇인가. 율법에만 매달리고 외식하느라 본질을 잊거나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선’이란 그런 것이다.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정작 강도 당한 사람은 모르는 척 지나쳐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들을 만난다. 그 ‘척’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아무렇지 않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아니,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더 끔찍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가식이 없고 위선을 떨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 바리새인 ‘조차도’ 못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마 5:20) 바리새인이 율법에 ‘만’ 매달렸다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을 보고 행하라는 의미로 바리새인을 닮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 5:20)’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는가. 



글 | 장예은 (팀 초록 팀장)

## 영은, 녹색 제8계명 : 녹색 문구점을 운영한다!

유난히도 지독했던 여름이 지나갔다. 그러나 다시 ‘가을 폭염’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한낮의 기온은 한여름 찌는 더위와 다름없을 만큼 너무나 더웠다. 더위뿐 아니라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장마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피해도 상당했다. 동남아처럼 아무 때나 쏟아지던 국지형 호우는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다음 해 여름은 얼마나 더 심할까?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여름은 얼마나 더 더울까?

“청년부 사무실 가위는 맨날 없어진다”는 농담이 있다. 성도님들이 속한 부서, 회사, 집에서도 이런 경험은 아마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왜 스카치테이프는 맨날 사도 계속 어디 간 걸까? 냉장고에 콩나물이 있는데 구석에 있는 걸 못 보고, 또 산 적은 없는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세일 하길래 사왔는데, 결국 안 먹고 상한 걸 그대로 버린 적은 없는가? 전업주부이신 성도들 외에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제로 웨이스트, 레스 웨이스트(Less Waste), 5R(Refuse 거절하기, Reduce 줄이기, Reuse 재사용하기, Recycle 재활용하기, Rot 썩히기)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로 ‘미니멀리즘’이 있다. 최소한의 물건만 사고, 집에 정말 필요한 것만 갖춰놓고, 심플하고 검소하게 사는 생활방식(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말로 한때 유행했었다. 생각해보면 교회는 그 반대인 ‘맥시멀리즘’인 것 같다. 선물을 준비한다면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이, 간식을 사더라도 잔뜩 준비

하여 넘치고 남는 것을 추구한다. 사실 그런 방식은 제한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도 낭비고, 지구와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영은, 녹색 십계명 중 <제8계명: 녹색 문구점을 운영한다>는 불필요한 중복 소비를 제한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최소한의 소비, 최대한의 효



율을 찾아보자는 뜻이다. 정말 필요한지 소비 전에 여러 번 고민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 좋은 물건은 교회에서 나누거나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보자. 아름다운 가게나 ‘구세군 희망 나누미’를 활용해보 수 있다. 교회 차원에서는 ‘녹색 문구점’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한 번 쓰고 버릴 플라스틱 문구류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남는 물건은 녹색 문구점에 내놓아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볼 수 있을 것이다. 폐전전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거나, 다시 충전해서 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영은의 성도들은 사서 창고에 저장해두다가 상해서 버리지 않기를, 필요한 만큼 알뜰하게 소비하여 지구까지 지키는 ‘녹색 실천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 봉사가 삶이 된 '라이온스 장로님'



조민성 은퇴장로

나의 어린 적 기억 속 조민성 장로님은 '라이온스 장로님' 이셨다. 교회 마당서 장로님을 뵈 때면 종종 라이온스클럽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하고 계셨다. 그 시절에는 장로님이 왜 라이온스클럽 목걸이를 즐겨 했는지 몰랐다. <신앙의 유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장로님은 평생 '봉사'가 삶의 목표이자 행복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회가 되면 봉사에 참여하곤 했다. 그 중 하나가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의 봉사활동이었다.

### ■ 영은교회의 평생교인이 되다

조민성 은퇴장로님은 1941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올해 나이 83살인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동네 토박이다. 장로님은 부모님이 다니던 양평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태신앙인'이다. 이후 부모님을 따라 당산동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장로님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 당시 당산동교회가 무척 어려웠는데,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교회를 새로 건축했고, 그것이 현재 당산동교회의 모습이다.

장로님은 6.25 전쟁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일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견뎌야 했다. 그러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제대 후에 당산동 4가에 있는 전셋집을 얻어 정착하게 되었다. 장로님은 당산동교회에 다닐 때 장인의 소개로 이길자 권사님을 만나 1965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장로님은 영은교회 근처에 있는 장인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1965년 4월에 부부가 영은교회에 등록하면서 '평생 교인'이 되었다.

### ■ 봉사가 삶이 되다

장로님은 영은교회 앞 3층 건물을 구매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하는 동안 새마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새마을 사업 소속인 '상록회'에 가입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등포 지역 곳곳을 다니며 무료 봉사를 많이 하였다. 안양천 뚝방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하였다. 한강성심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병원 멤버의 도움으로 의료봉사를 하였다. 장로님의 역할은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지어주는 일이었다. 교회에서도 '뚝방 봉사'를 많이 하였다. 허남기 목사님과 교인들이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는 뚝방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1년 동안 집중해 봉사한 적이 있다.

상록회 회원 4명이 한 팀이 되어 4박 5일 동안 전라북도 영광군 덕진면에 가서 2,300명을 무료로 진료한 일도 있다. 당시 덕진면은 홍수 피해가 심각해서 내무부 장관이 상록회에 부탁해 무료진료 봉사를 나갔다. 장로님은 지금도 그 봉사를 잊지 못한다.

또한, 한성기업에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지부에도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넓혀 나





지역봉사의 등불로

라이온스클럽 한국지부 봉사활동

갔다. 국제라이온스협회(라이온스클럽)는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촌을 위해 100년 넘게 봉사하는 세계적인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조민성 장로님은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되어 7~8년 동안 영등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장로님에게는 ‘봉사가 삶’이었다.

## ■ 필리핀 선교와 봉사

조민성 장로님은 1991년 11월 24일에 집사 안수식을, 2000년 1월 2일에는 장로 장립식을 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필리핀 선교 및 봉사 사역이었다. 집사일 때부터 장로님은 영은교회 교인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지에 가곤 했다. 2009년에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영은교회 중·고등부 학생 20여 명과 함께 필리핀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 학교를 방문해서 봉사팀은 머리를 깎아 주기도 하고, 선교팀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며 전도하기도 했다. 장로님은 70세 장로 은퇴 때까지 필리핀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며 선교와 봉사에 힘썼다.



2009년 8월 중·고등부 필리핀 비전트립 구타 영은교회 방문

우리 교회는 1981년부터 꾸준히 필리핀 선교에 주력해 왔다. 1981년에는 필리핀 잠봉가에 교회를 개척했고, 1992년에는 선교지의 현지인 혼련을 목적으로 해외선교원을 설립했다. 2006년에는 필리핀 구타영은교회를 설립해 헌당예배를 드렸으며, 2007년에는 필리핀 망안 영은 엔젤스 빌리지를 준공했고, 2009년에는 중·고등부 필리핀 비전트립이 있었다. 2011년 10월 11일에는 필리핀 하바나이교회 헌당예배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 31일에 조민성 장로님은 장로직에서 은퇴했다. 장로님은 수차례 필리핀 선교지를 오가며 해외 선교와 봉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최근에 영은교회 청년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필리핀 민도르섬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83살의 장로님은 아직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히 봉사할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장로님의 봉사에 대한 열정이 이미 ‘봉사’가 아닐까 싶다. 

〈인터뷰 글 | 김명희 기자〉

# 새가족 환영의 날

지난 9월 29일 주일 오후 12시 반 7층 식당에서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40여 명, 장년 60여 명 등 아이들을 포함하여 110여 명의 새가족이 함께 했으며, 이슬비 성도와 허은빈 청년이 영은의 새가족으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 이숙경 기자〉



새가족 환영 날

##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담 임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교육전도사 나진희 박선민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황예찬 손예지  
 파 송 선교 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 ▶ 영은교회 예배시간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일예배    | 1부 오전 7:30  | 본 당         |
|         | 2부 오전 9:00  |             |
|         | 3부 오전 11:00 |             |
|         | 4부 오후 1:30  |             |
| 오후예배    | 오후 3:30     | 본 당         |
| 수요일예배   | 오후 7:30     | 본 당         |
|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30  | 본 당         |
| 금요심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30 | 본 당         |
| 영아부     | 주일 오전 11:00 | 1층 영아부실     |
| 유아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2층     |
| 유치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2층     |
| 유년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5층     |
| 초등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5층     |
| 소년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5층     |
| 꿈자람부    | 주일 오후 1:30  | 비전센터 2층     |
| 중등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 고등부     | 주일 오전 9:0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 제자학교    | 주일 오전 10:0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 청년부     | 주일 오후 1:30  |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eun.or.kr](http://www.youn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mailto:yemagazine@naver.com)